

119구급대원의 자기계발 교육이 업무능력,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소라¹, 문태영², 최미영^{3*}

¹횡성소방서, ²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³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Influence of the Self-Help Education on Job Competence,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119 Paramedic's

So-Ra Kim¹, Tae-Young Moon², Mi-Young Choi^{3*}

¹Hoengseong Fire Station, Kangwon

²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Sunm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이 업무능력,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구급대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무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강원 및 대구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성인 남녀 205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 업무능력 및 직무 만족도, 삶의 질 간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이 업무능력(개인적 영역), 직무 만족도(개인적 영역, 조직적 영역, 전문적 영역), 삶의 질(개인적 영역, 전문적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 < .01$, $p < .001$). 119구급대원들의 삶의 질에는 업무능력(고객 지향성, $p < .01$), 직무 만족도(상관 및 동료, 전문성, $p < .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elf-help education on job competence,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119 paramedics, and to prepar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12 to August 23, 2019, on 205 male and female fire officers in the Gangwon and Daegu Provinc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0.0 version, and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had a static correlation between self-help education, job competence,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lso, the self-help education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job competence (personal area), job satisfaction (personal area, organizational area, professional area) and quality of life (personal area, professional area) ($p < .01$, $p < .001$). The job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f the paramedic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quality of life.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specific systems need to be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invigoration of self-help education for paramedics.

Keywords : 119 paramedic's, Job Competence, Job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Self-Help Education

본 논문은 2020년 강원대학교 대학원 김소라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 Mi-Young Choi(Sunmoon Univ.)

email: emtmy@naver.com

Received October 12, 2020

Revised December 16, 2020

Accepted February 5,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 의식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기관에서도 안전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도 향상됨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1].

많은 국민들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50대 이상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314명을 대상으로 “현재 자기계발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6%가 “그렇다.”라고 답했다는 결과를 살펴본다면 시간이 흐름에도 자기계발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2].

특히, 119구급대원들이 수행하는 재난구조나 응급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보호가 직결되는 서비스이기에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3]. 이러한 상황은 119구급대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 조직의 관심은 인프라(전문 인력과 장비 등)의 확충에 집중되었지만, 앞으로는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교육·훈련 부문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로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4].

일에 있어서 업무능력은 임상에서 필요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발휘하고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5], 단순히 지식과 기술의 획득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반영하고 보강하는 가치, 믿음, 태도, 사고방식, 임상적 판단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한다[6]. 119구급대원의 업무능력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의료현장에 맞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받아야 했던 119구급대원들에게 이러한 결과들은 불만 거리가 되어 직무 스트레스를 높지게 되며, 직무 만족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적용할 개연성을 안고 있다[7].

따라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119구급대원들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인

식해 볼 때,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동기부여나 119구급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8]. 그 결과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받게 되며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을 초래하게 된다[9].

직무 만족과의 관계는 동기 이론에서 유래되며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은 직업을 가진 결과로 개인의 요구가 만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해하는 사람은 낮은 이직과 결근을 유도하며 직업 만족이 직무수행과 일관성 있는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10].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11].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직무 만족은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들의 국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삶의 질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포함한다[12]. 또한 삶의 질은 삶에 대한 개개인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기도 한다[13]. 삶의 질은 사람들의 욕구충족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충족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제까지 119구급대원들의 삶의 질을 측정·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대체로 삶의 질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 물질적 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물질적 복지와 같이 등급화하고 비교 가능한 것으로 다루고 있지만 후자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리 느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4]. 이처럼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되고 있는 삶의 질은 개인의 성장을 돕는 자기계발 활동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15].

이처럼 업무능력, 직무 만족, 삶의 질은 119구급대원들에게 중요한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기에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기계발 교육이 개인의 성장을 돕는 효과가 있기에 이러한 교육이 과연 업무능력 향상과 직무 만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자기계발 교육의 확대를 통한 구급대원들의 직무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현재 강원 및 대구에 소재한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소방공무원 중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일부 누락된 설문지 45부를 제외한 총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의 도구를 연구목적에 맞추어 연구자가 설문지의 구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받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3명과 교수 2명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하여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 업무능력, 자신감, 직무 만족도, 삶의 질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요인추출모델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지각회전방식 중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요인적재치가 0.5 이상인 문항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ults of the item reliability test

Variable	Cronbach's α
Self-help education	.948
Job competence	.785
Job satisfaction	.947
Quality of life	.951

2.2.1 자기계발 교육

자기계발의 형태는 회사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기계발 교육에 대한 연구도구는 2003년 김성희[16]가 개발한 도구를 2015년에 이소희[17]가 재사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119구급대원에게 사용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계발 교육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전문적 영역 요인 10문항, 조직적 영역 요인 4문항, 개인적 영역 4문항 총 18문항으로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119구급대원의 자기계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자기계발 교육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1$ 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2.2.2 업무능력

업무능력은 2013년에 김지희[18]가 개발한 도구를 김도영[6]이 치과위생사의 4C 핵심역량에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전문성(능력) 5문항과 고객 지향성(태도) 5문항 총 10문항으로 2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119구급대원의 업무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업무능력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7$ 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2.2.3 직무 만족도

직무 만족도는 측정도구는 김은경[7]이 재사용한 도구로 5개의 하위요인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근무환경 7문항, 상관 및 동료 4문항, 직무 4문항, 보수 및 승진 3문항으로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119구급대원의 직무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업무능력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5$ 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2.2.4 삶의 질

삶의 질은 오정근[19]의 연구를 참고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형적인 상태와 내면적인 심리상태가 변화하는 경험의 총체로서 복지에 대한 실질적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배종훈[14]이 사용한 도구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119구급대원의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업무능력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8$ 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05$ 일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과 업무성취능력, 직무 만족도, 그리고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3)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이 업무성취능력, 직무 만족도,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총 205명 중 성별로는 남자가 84.4%로 여자 15.6%보다 많았다. 결혼여부 별로는 기혼이 68.8%로 미혼 31.2%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 별로는 30대가 5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 32.2%, 40대 8.3%, 50대 이상 2.9%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 별로는 대학교 졸업이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대학 졸업 27.8%, 고등학교 졸업 13.2%,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0% 순이었다.

현 직장 근속년수 별로는 1년 미만인 35.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1~3년 미만 31.2%, 3~5년 미만 17.1%, 5년 이상 16.1% 순으로 차지하였다. 월평균 급여별로는 150~200만원 미만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0만원 미만 28.3%, 250~300만원 미만 15.1%, 200~250만원 미만 13.2%, 300만원 이

상 5.4%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205)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73	84.4
	Female	32	15.6
marital status	unmarried	64	31.2
	married	141	68.8
Age	20~29 years	66	32.2
	30~39 years	116	56.6
	40~49 years	17	8.3
	over 50 years of age	6	2.9
Education	High school	27	13.2
	College	57	27.8
	University graduation	117	57.1
	Graduate school or graduation	4	2.0
Years of work	< 1 years	73	35.6
	1~3 years	64	31.2
	3~5 years	35	17.1
	5 years \leq	33	16.1
Salary (million)	< 150	58	28.3
	150~199	78	38.0
	200~249	27	13.2
	250~299	31	15.1
	≥ 300	11	5.4
Total		305	100.0

3.2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 업무능력, 직무 만족도, 삶의 질 간 상관관계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 업무능력, 직무 만족도,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위하여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업무능력($r=.493, p<.01$), 직무 만족도($r=.740, p<.01$), 삶의 질($r=.615, p<.01$)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만족도($r=.474, p<.01$), 삶의 질($.492, p<.01$)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능력은 직무 만족도($r=.537, p<.01$), 삶의 질($r=.455, p<.01$)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만족도는 삶의 질($r=.691, p<.01$)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Correlation of Self-Help education, Job Competence, Job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Self-Help Education	Job Competence	Job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Self-Help Education	1			
Job Competence	.493**	1		
Job Satisfaction	.740**	.537**	1	
Quality of life	.615**	.455**	.691**	1

** p<.01

3.3 119구급대원의 자기계발 교육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

119구급대원의 자기계발 교육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영역, 조직적 영역, 전문적 영역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19구급대원의 자기계발 교육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F=23.518, p<.001), 약 26.0%(R2=.260)를 설명해주고 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능력에는 자기계발 교육 중 개인적 영역($\beta=.274$,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적 영역, 전문적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은 자기계발 교육의 개인적 영역이 풍부할수록 업무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influence of self-help education on job competence

Categories	Task Performance			
	B	β	t	p
personal area	0.225	0.274	2.991**	0.003
organizational area	0.131	0.159	1.912	0.057
professional area	0.125	0.144	1.651	0.100
Constants	1.630		7.512***	0.000
R2			0.260	
F(p)			23.518***	(0.000)

** p<.01, *** p<.001

3.4 119구급대원의 자기계발 교육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19구급대원의 자기계발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영역,

조직적 영역, 전문적 영역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19구급대원의 자기계발 교육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F=87.739, p<.001), 약 56.7%(R2=.567)를 설명해주고 있다. 119구급대원의 직무 만족도에는 자기계발 교육 중 개인적 영역($\beta=.333$, p<.001)과 조직적 영역($\beta=.193$, p<.01), 전문적 영역($\beta=.329$,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은 자기계발 교육의 개인적 영역, 조직적 영역, 전문적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The influence of self-help education on job satisfaction (N=205)

Categories	Job Satisfaction			
	B	β	t	p
personal area	0.180	0.333	4.747***	0.000
organizational area	0.105	0.193	3.034**	0.003
professional area	0.188	0.329	4.939***	0.000
Constants	1.582		14.512***	0.000
R2			0.567	
F(p)			87.739***	(0.000)

** p<.01, *** p<.001

3.5 119구급대원의 자기계발 교육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19구급대원의 자기계발 교육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영역, 조직적 영역, 전문적 영역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19구급대원의 자기계발 교육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F=42.667, p<.001), 약 38.9%(R2=.389)를 설명해주고 있다. 119구급대원의 삶의 질에는 자기계발 교육 중 개인적 영역($\beta=.242$, p<.01)과 조직적 영역($\beta=.445$,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적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은 자기계발 교육 중 개인적 영역과 조직적 영역이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The influence of self-help education on quality of life (N=205)

Categories	Quality of life				
	B	β	t	p	
Self-Help Education	personal area	0.235	0.242	2.909**	0.004
	organizational area	-0.019	-0.020	-0.259	0.796
	professional area	0.459	0.445	5.634***	0.000
Constants		1.084		4.665***	0.000
R2				0.389	
F(p)				42.667***	(0.000)

** p<.01, *** p<.001

3.6 119구급대원의 업무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19구급대원의 업무능력의 하위요인인 전문성(능력)과 고객 지향성(태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26.679, p<.001), 약 21.0%(R2=.210)를 설명해주고 있다. 119구급대원의 삶의 질에는 업무능력 중 고객 지향성(태도) 영역($\beta = .334$,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은 업무능력 중에서 고객 지향성 영역이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The influence of job competence on quality of life (N=205)

Categories	Quality of life				
	B	β	t	p	
Job Competence	professional (competence)	.148	.150	1.291	.198
	customer orientation (attitude)	.334	.325	2.805**	.006
Constants		2.228		5.057***	.000
R2				.210	
F(p)				26.679***	(.000)

** p<.01, *** p<.001

3.7 119구급대원의 직무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19구급대원의 직무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상관 및 동료, 전문성 직무(능력)과 보수 및 승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119구급대원의 직무 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75.332, p<.001), 약 52.9%(R2=.529)를 설명해주고 있다. 119구급대원의 삶의 질에는 직무 만족 중 상관 및 동료 영역($\beta = .375$, p<.001), 전문성 직무 영역($\beta = .44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은 직무 만족 중에서 상관 및 동료, 전문성 직무 영역이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8. Th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on quality of life (N=205)

Categories	Quality of life				
	B	β	t	p	
Job Satisfaction	supervisors/colleagues	1.165	.375	5.467***	.000
	professional job	.981	.443	6.900***	.000
	pay/promotion	-.202	-.015	-.955	.340
Constants		.888		1.767**	.004
R2				.529	
F(p)				75.332***	(.000)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상으로 자기계발 교육이 업무능력,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 활성화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강원 및 대구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이들의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 173명(84.4%), 여자 32명(15.6%)였다. 소방서에 종사하는 인력이 대부분 남성으로 소방서에 근무하는 119구급대원도 또한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하지만 차츰 소방공무원 중에 119구급대원 채용 시험에서 경력자들로 여성 인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생각된다. 결혼 여부에 있어서 기혼이 141명(68.8%), 미혼 64명(31.2%)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분포도는 20대가 30대가 116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66명(32.2%), 40대 17명(8.2%), 50대 이상 6명(2.9%) 순으로 나타났다. 20대가 가장 많은 63.0% 이현지 등[20], 53.1% 임세영 등[21]의 연구와 부합되었으나, 30대가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김희진[22]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17명(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대 졸업 57명(27.8%), 고등학교 졸업 27명(13.2%), 대학원 재학 이상 4명(2.0%)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 직장의 근속년수는 1년 미만 73명(35.6%), 1~3년 미만 64명(31.2%), 3~5년 미만 35명(17.1%), 5년 이상 33명(16.1%)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급여는 150~200만원 미만 78명(38.0%), 150만원 미만 58명(28.3%), 200~250만원 미만 27명(13.2%), 250~300만원 미만 31명(15.1%), 300만원 이상 11명(5.4%)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 교육 활동이 업무능력, 직무 만족도, 삶의 질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보면 자기계발 교육 활동이 업무능력과 직무 만족도 등의 직장 생활과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30대 미용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계발 교육 여부와 삶의 질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또한, 여러 요인들과 영향요인 분석 결과, 자기계발 중 개인적 영역이 충족될수록 업무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 영역에는 119구급대원 개인이 느끼는 자기계발 교육의 필요성, 추천 의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업무능력은 다양한 실무 환경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얻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24], 119구급대원들과 같은 응급상황 등의 예측할 수 없는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보호 결과를 얻기 위한 업무능력 발휘는 무엇보다 많은 횟수의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품질이 우수해야만 하며, 특히나 눈높이에 맞는 강의 수준 결정, 콘텐츠 다양성 확보 등의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25]. 또한 실무 뿐만아니라 개인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장하여 일상 속에서 업무로 복귀해도 스트레스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119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교육과 업무능력 간에 선행연구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 또한 의미 있는 결과로서 자기계발 교육이 일부분 업무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파악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직무 만족도 또한 자기계발 교육과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교육내용, 참가자 태도, 시설환경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26]. 교육내용은 개인적, 전문적 요인, 참가자 태도는 개인적 요인, 시설환경은 조직적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의 질 향상은 119구급대원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이유이자 동기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만족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계발 교육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의 개인적 영역은 자기계발 교육에 대한 필요성, 교육내용 등, 조직적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119구급대원들의 생각을 의미한다. 자기계발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 상호작용함을 알 수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22]. 또한 교육의 효과로서 심장재활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노인 관상동맥 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27]. 이처럼 교육과 삶의 질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무엇보다 일에 대한 만족이 높아야 업무수행능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28, 29].

119구급대원들은 업무능력 중 고객 지향성(태도)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서 고객은 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를 의미하며,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와 관심 등이 높다면 구급대원 본인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다. 119구급대원은 생명을 다루는 전문성이 높은 직업군으로서 환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밑받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고객 지향성은 결국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환자와 구급대원 간에 신뢰 형성 및 긍정적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9구급대원들의 상관 및 동료 간 만족도와 직무의 전문성 확보 또한 삶의 질이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태권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 만족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30].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일의 내용 등에 해당하는 직무 만족 관련 요인들이 주관적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며, 직무개발이 필요하기에 하여 직무 만족과 삶의 질은 함께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31].

그러나 업무 특성상 119구급대원들은 직무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됨에 따라 직무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다[32]. 이는 구급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직무 만족에 중요 요인으로 나타난 상관 및 동료들 간 긍정적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은 업무능력, 직무 만족,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아 자기계발 교육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 업무능력,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계발 교육 확대를 통한 구급대원들의 직무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자기계발 교육, 업무능력, 직무 만족도, 삶의 질 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의 업무능력, 직무 만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계발 교육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19구급대원들의 자기계발 교육이 업무능력,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에서만 수집된 조사자료이기에 좀 더 대상을 넓혀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119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계발 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119구급대원들의 직무 만족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는 복지 정책적 측면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먼저 119구급대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소방학교 기본·전문 교육과정 및 자체 직장교육 과목에 구급 현장 및 재난의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 과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119구급대원의 직무 연관성과 자기계발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역시 119구급대원의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References

- [1] M. Y. Choi, T. Y. Moon, "Influence of the quality of work lif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customer orientation in 119 paramedic'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2, pp.48-57, 2020.
DOI:<https://doi.org/10.5762/KAIS.2020.21.2.48>
- [2] Digital times,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42802011531747002 2014. 07.07.
- [3] J. W. Lim, *Job-related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Korea, 2013.
- [4] B. R. Choi,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Psychosocial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119 Ambulance Workers*,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of Public Health, Korea, 2015.
- [5] C. Barrett,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7, No.2, pp.364-371, 1998.
- [6] D. Y. Kim, *The Effects of 4C Core Competence of Dental Hygienists on Business Ability*,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of Dental Hygiene, Korea, 2019.
- [7] E. K. Kim,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care Center Teachers on Teachers' Role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Uiduk Univers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2014.
- [8] S. T. Han, *The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n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ergency Medical Service for the Foreign Emergency Patients*,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Korea, 2014.
- [9] K. S. Ba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turnover intention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Vol.14, No.1, pp.6-80, 2010.
- [10] D. B. Slavitt, P. L. Stamp, E. B. Piedmont, A. M. B. Hasse, "Nurses satisfaction wity their work situation", *Nursing Research*, Vol.27, No.2, pp, 114-120, 1978.
- [11] S. K. Yoou, "The effect of the 119 EMT's job satisfaction impact on emergency patients using ambulance",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24, pp.67-102, 2008.
- [12] L. G. Kvarme, K. Haraldstad, S. Helseth, R. Sorum, G. K. Natvig, "Associations between general self-efficacy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12-13-year-old school children: a cross-sectional survey", *Health Qual Life Outcomes*, Vol.7, No.85, pp.1-8, 2009.
- [13] G. A. Meeberg, "Quality of life: a concept analysis", *Leading Global Nursing Rsearch*, Vol.18, No.1, pp.32-38, 1993.
- [14] J. H. Bae, *The Influence of Hotel Cuisine Employees'*

[1] M. Y. Choi, T. Y. Moon, "Influence of the quality of

- Work Environment 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5.
- [15] K. S. Kim, N. J. Kim, S. I. Oh, Self-development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 no.2, pp.259-294, 2017. DOI: <https://doi.org/10.46415/jss.2017.06.24.2.259>
- [16] S. H. Kim, *A Study on The ganizational Climate and Teachers' Desire for Self-Development in An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f Elementary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3.
- [17] S. H. Lee, *The Influence of Child Care Teacher's Teacher Efficacy and Work Environment on Desire for Self-development*,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5.
- [18] J. G. Kim, *Development of Job Performance Assessment Tool for Dental Hygienists*, Ph.D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of Public Health, 2013
- [19] J. G. Oh, *The Effects of Tourism Experience on Psychological Quality of Lif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01.
- [20] H. J. Lee, T. Y. Moon, M. Y. Choi, "Impact of self-regulation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emergency medical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9, pp.4359-4367,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9.4359>
- [21] S. Y. Lee, H. J. Lee, "Influence of the quality of sleep on stress and job satisfaction in emergency medical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9, pp.322-333,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9.322>
- [22] H. J. Kim, J. Y. Bae, "The degree of job stress,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Vol.6, No.2, pp.21-32, 2014.
- [23] S. Y. Ki, *Self-Improvement Activities by Beauty practician from ages 20 to 30 and their effects on their Qualities and satisfaction of Life*, Master's thesis, Seokyeong University, 2016.
- [24] P. Benner, "Issues in competency-based testing", *Nursing outlook*, Vol.30, No.5, pp.303-309, 1982.
- [25] J. I. Oh, D. Y. Jeong, "Influence of education program quality on flow and performances in the customized job training course",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 Vol.9, No.3, pp.025-044, 2019. DOI: <http://dx.doi.org/10.35273/jec.2019.9.3.002>
- [26] Y. J. Yoo, Y. K. Park,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service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orientation of food-service industry practician",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Vol.17, No.4, pp.103-123, 2014.
- [27] M. H. Won, "Effect of education and counselling-based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on cardiovascular risk, health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6, pp.303-313,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6.303>
- [28] H. Han, P. H. Lee, M. Y. Ni, B. H. Y. Chan, T. H. Lam, "Effects of depressive symptoms and family satisfaction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e Hong Kong FAMILY study", *Public Library of Science*, Vol.8, No.3, e58436, 2013.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58436>
- [29] H. Demirel,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eacher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116, pp.4925-4931, 2014. DOI: <https://doi.org/10.1016/i.sbspro.2014.01.1051>
- [30] K. H. Kim, S. S. Sh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emotional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taekwondo leaders", *The Korea Journal of Sport*, Vol.18, No.2, pp.1181-1197, 2020. DOI: <http://doi.org/10.46669/kss.2020.18.2.103>
- [31] C. S. Lee, M. S. Kim, "Effect of Job Satisfaction of Paid Handicapped Workers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Sense of Happiness", *GRI Review*, Vol.21, No.2, pp.209-229, 2019.
- [32] K. S. Park, Y. M. Ha, M. J. Seo, Y. S. Choi, M. J. Kim, Y. J. Jeong, S. K. Yang, "Impact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firefighters: focused on posttraumatic stress, health-related work limitations, and family support",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6, No.3, pp.142-150, 2017. DOI : <http://dx.doi.org/10.5807/kjohn.2017.26.3.142>

김 소 라(So-Ra Kim)

[정회원]



- 2014년 2월 :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사
- 2020년 2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응급구조학 석사
- 2017년 10월 ~ 현재 : 횡성소방서 우천119안전센터 근무

<관심분야>

소방, 안전

문 태 영(Tae-Young Moon)

[중신회원]



- 1993년 2월 : 국민대학교 체육학과(운동생리학 체육학석사)
- 2000년 2월 : 명지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건강증진

최 미 영(Mi-Young Choi)

[정회원]



- 2013년 2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 및 응급 보건학(보건과학석사)
- 2018년 2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응급의료재활학과(응급구조학 박사)
- 2020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안전, 응급구조